

출판유통 국제표준 프로그램 도입으로 출판유통 선진화 도모



2003년 출판유통 국제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지난 4월 9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렸다. (사)출판유통진흥원(전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 회장 최태경)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종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등 100여 명의 출판계 인사가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의 의제가 된 '출판유통 현대화'는 우리 출판계의 오랜 숙원. 낙후된 수작업과 주문서 거래 위주의 전근대적 출판유통 시스템은 판매 및 반품 부수의 정확한 집계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한국출판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가 나와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 전망 등을 짚어보았다. 특히 주최측은 영국출판협회 디렉터이자 BIC(Book Industry Communication) 출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출판유통 전문가 피터 킬본 씨를 초청, 영국의 선진 출판유통 사례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중호 한국출판유통 경영기획실장은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 개요'에 대해 브리핑했다. 배포

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시작된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은 현재 3단계로 나뉘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관업계 정보구축 등의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유통 시스템 개발 및 확장 단계로 도서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는 제 3단계 사업으로 유통 시스템 정착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열 교수(동의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출판유통의 국제적 표준 프로그램 체계인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과 그 기능, 활용 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닉스가 타체계와 비교할 때 도서뿐만 아니라 전자책 거래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타미디어와의 연계가 용이하며 콘텐츠와 메시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초청된 피터 킬본 씨는 영국의 출판유통 표준화 사례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출판유통산업, 그리고 출판업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얽혀 있는 콘텐츠와 정보들을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하여 공유하게 하고 상품의 반품비용을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경우 출판유통은 EDI 시스템을 활용, 출판관련 정보들이 표준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결과 반품 비율을 13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발표자인 오완영 한맥 인포텍 이사는 출판유통 온라인화 및 전자상거래 실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기술진의 자격으로 출판유통 전자상거래 시범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XML Enabled e-Business는 기존 IT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IT 시스템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기술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국제 세미나'에 걸맞지 않는 부실한 준비와 운영이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세미나 참석자들을 위한 안내 자료나 설명서 등이 충실하지 못했고, 패널들의 발표도 지나치게 요약된 형식적인 브리핑 수준에 머물러 큰 기대를 갖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출판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주최측이 약속한 대로 다음 세미나에서는 내실 있는 준비를 기대해 본다. **김도연 기자**